

임상빈 Sangbin IM

1976년 서울 출생

www.sangbinim.com

쓰라리도록 황홀한 풍경, 이 시대의 자화상

나는 자연과 도시, 전통과 현대, 실제와 가상, 사진과 회화, 부분과 전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합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관계와 충돌을 통해 자본주의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현대사회의 특정 장소가 내뿜는 거대한 에너지를 표현한다. 정부나 대기업의 자본, 기술, 인력의 투입으로 탄생한 유명 장소는 대중을 유혹하여 하나의 집단적 사회문화 에너지로 모이고 조절한다.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만나 전체로서의 특별함을 연출한다. 이곳은 현대문명의 성지이자 왁자지껄한 공연장이다.

서양화를 전공한 나는 사진 이외에도 회화, 드로잉, 영상, 사운드,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펼친다. 나의 사진 작업은 일상의 풍경을 고유한 방식으로 과장, 변형, 왜곡하여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다. 거대도시의 건축물과 풍경, 주변의 인물을 다양한 시점에서 수백 장 촬영하여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합하고 확장시켜 화면을 재구성, 마치 순간을 포착한 듯한 한 장의 그럴법하지만 묘한 이미지로 조합한다. 회화적 붓질을 중첩시켜 습윤한 회화적 풍경을 연출하며, 형태, 색채, 명암, 질감의 극적인 대비와 강조 효과를 통해 풍경의 스펙터클을 강화하고 재현한다.

주변에 수많은 건물 숲이 솟아나며 경쟁한다. 나도 어른이 되면 이 건물 중 몇 개는 내 것이 아닐까 꿈도 꿔다. 나는 이미지를 창조, 소유, 전시한다. 대기업이 아닌 작은 개인으로서 도심의 판타지를 그려내며 대도시가 갖는 매력과 위협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자본주의가 주는 달콤함과 씁쓸함을 음미한다. 1985년, 세계화의 욕망이 빚어낸 63빌딩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1995년, 서울 한복판의 삼풍백화점 참사를 피하면서 거대 구조물이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2003년, 뉴욕에 도착한 첫날 미국의 역사적인 대규모 정전사태를 경험하면서 도시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통제하는지 고민했다. 1997년과 2008년, 거품경제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추동하고 부채를 떠안은 가계가 함께 들썩였던 자본에 대한 욕망과 투기 중독이 어떻게 우리들을 옅어매고 피폐하게 하는지 목도한 경험은 쓰디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황홀경과 압울함에 끌리며 도시의 기획에 찬사를 보내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인간을 연민한다. 나의 작업에서 우리들은 몹시도 부산하다. 몇몇은 여유롭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이들은 교체 가능할지언정 특별하다. 나는 비평적 거리를 견지하며 이 풍경을 꼼꼼이 바라본다.

나는 내가 보는 세상을 내 식으로 잘 표현하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환영의 공간은 도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보편적 실제의 흐름, 기획, 관리, 경영, 그리고 나그네로 태어난 개인의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이 만나는, 처연하게도 매혹적인 관조와 명상의 공간이다. 다양한 관점이 끊임없이 교차, 중복되며 다면적이고 복수적인 대립항이 관계 맺고 무한히 확장되는 의미화의 경연장이다. 시각과 수학, 표현과 이성, 문화와 기술, 회화와 컴퓨터가 교차하는 나의 작업은 뉴미디어 시대, 현실을 다시 보고, 사회 구조와 우리의 존재를 질문하며, 새로움을 상상하고 즐기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